

# 수명 2년 늘었다... 내달 암보험료 10% ↑, 종신보험료는 ↓

경험생명표 발표에 보험료 조정  
男 평균수명 86.3세, 女 90.7세로  
65세 기대여명 각각 2.3년, 1.9년 ↑

수명 연장에 의료 이용량 늘어나  
건강·연금보험 보험료 인상 전망

오는 4월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1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이 상승해서다. 반면, 사망률 감소에 따라 종신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이다.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통상 3~5



4월 암보험 보험료가 10% 인상되고 종신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전망이다. /유투이미지

년 주기로 개정한다.

특히 이번 제10회 경험생명표는 평균 수명 2년 연장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보험사는 더 오랫동안 보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개정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어났다.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제9회 경험생명표보다 각각 2.3년, 1.9년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며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 수술 인원, 수술 건수는 매년 증가해서다.

건강보험은 수명 연장에 따라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량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수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선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반면 이번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사

망률 감소에 따라 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역시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9회 경험생명표 적용 당시 평균 수명 남성 2.1세, 여성 1.8세 늘면서 종신보험 보험료는 평균 3.8% 인하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연금보험 등은 개정 전에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개정된 이후인 다음 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반응이다. 개정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내 특약들도 발생률 감소에 따라 20% 정도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계약 시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크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 1면 '메트로경제와 함께'서 계속

### ■ 제출서류

-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카페(아랑), 구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 원서접수

- ① 기 간 : 2024년 2월 29일(목) ~ 2024년 3월 29일(금)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3월 29일 도착분) 채용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접수 가능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년 4월 3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
- ③ 내용 : 공지하는 취재 주제로 기사 작성하여 제출

### · 면접(실무 면접, 임원 면접)

- ① 일자 : 2024년 4월 11일(목)~12일(금)
- ②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③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년 4월 17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 ☎ 02-721-9851

# 수학 1등급 대비 의대정원, 수도권 '6.3배' 지방은 '1.7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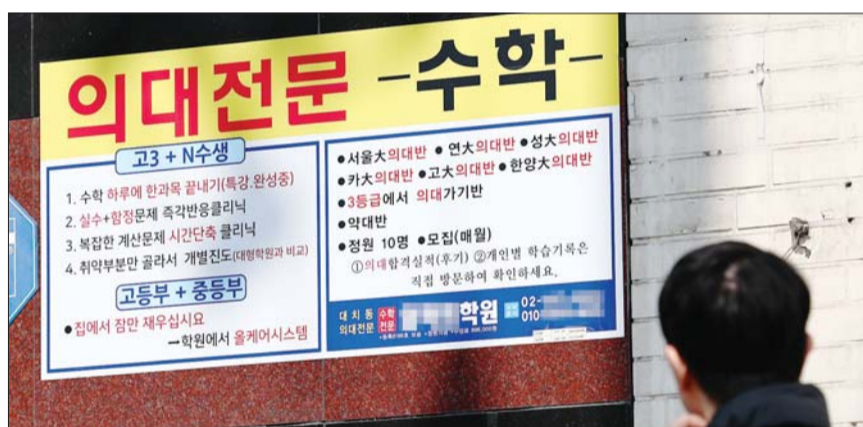
의대증원 1600명 비수도권 배분  
비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 3346명  
의대정원은 3623명... 277명 많아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중 1600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할 경우 비수도권대 기준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 수보다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의 의대 경쟁률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쟁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인원과 의대 정원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수도권 고교 3학년 중 수학 1등급을 받은 인원은 6277명으로 수도권대학 1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정원(993명)의 6.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은 3346명으로, 비수도권 27개 의대 정원(2023명)의 1.7배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권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은 2993명으로, 경인권 3개 의대 정원인 129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위치한 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 앞에 의대 준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23.2배에 달했다. 호남권은 수학 1등급 709명으로 호남권 4개 의대 모집정원 485명 대비 1.5배 ▲충청권 수학 1등급 771명, 7개 의대 421명 대비 1.8배 ▲부울경 수학 1등급 919명으로 6개 의대 459명 대비 2.0배 ▲대구·경북은 수학 1등급 756명으로 5개 의대 351명 대비 2.2배 ▲제주권 수학 1등급 94명으로 1개 의대 40명 대비 2.4배 수준이다. 수학 1등급 학생 수 기준, 서울·수도권이 평균 지역 내 의대 모집정원대비 6.3배, 지방 6개 권역은 1.7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중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추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

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2000명 중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정원 1600명과 400명씩 8대 2 비율로 배분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비수도권 의대 모집 정원 2023명은 1600명 총 3623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비수도권 고3 중 수학 1등급 학생 수(3346명)보다 277명 많은 셈이다.

수도권대 의대 모집정원은 993명에서 400명이 추가될 경우 총 1393명으로 늘어 올해 기준 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의 4.5배가량으로 줄지만, 비수도권 대와는 격차는 여전히 크다.

문제는 지역인재전형 선발과정에서 지역별 경쟁률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의대는 지난 2016학년도부터 대학별로 신입생 20~40%가량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많아질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비수도권 수험생의 의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의대 보유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 의대 지원 수험생이 늘고, 수능 등급별 인원 수도 바뀌기 때문에 비수도권 의대 학생 수보다 비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이 많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격선이나 경쟁률 격차가 커진다는 점은 우려된다”라며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라 의대 입학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향후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역인재 확대 정도에 따라 지역 간 의대 경쟁구도는 격차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 정부 “의사 집단행동, 악순환 고리 끊겠다”

## >> 1면 '의료재앙 분수령'서 계속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풀어야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 환자를 떠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 ◆ '의료재앙'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 행동이 과거와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의사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추진할 당시, 약 1년 동안 파업 등 집단

행동을 해 '의대 정원 10% 감축' 수가 인상 등을 얻어낸 바 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교수들의 사직선언에 증원을 포기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오랜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로 조정

된 수치를 뒤로 실력 행사로 물리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며 “2000명 수치를 풀라고만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 국민 생명 위협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이 낮아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 체계 붕괴가 실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이세경 기자 selee@